

강남구 대치동

'메모리반도체 신화' 전영현 사장, 삼성 SDI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전망

삼성SDI는 설립 초기 브라운관 생산을 시작으로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사업을 이어오다가 2014년 7월 제일모직 소재사업부를 흡수합병하면서 PDP사업을 철수했다. 이후 2000년 소형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등 차세대 2차전지 사업을 다각화했다.

전영현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은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자공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89년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아날로그회로설계 연구원을 거쳐 1991년 LG반도체 D램 개발팀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그는 LG반도체가 현대전자에 합병되면서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2001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D램 설계팀장을 맡아 본격적으로 메모리 사업에 집중했다. 2009년부터 D램 개발실장, 플래시개발실장, 메모리 전략마케팅



한보미도맨션

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팀장 등을 역임한 후 2014년 5월 메모리 사업부장이 됐으며 그해 12월 사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LG반도체 D램 개발팀 연구원 시절 64메가 D램 개발을 시작으로 약 20년간 메모리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했으며 국내 메모리기술을 발전시킨 인물로 평가받는다. 반도체 설계능력이 탁월하다

는 평가를 받으며 삼성전자의 D램 미세 공정과 3D낸드 적층기술 개발에도 전영현 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역할 덕분에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 호황기를 맞을 수 있었으며 2017년과 2018년 삼성전자는 2년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인텔을 넘어 세계 반도체 1위 자리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아울

러 삼성전자는 전영현 사장을 권오현 전 삼성종합기술원 회장, 김기남 DS부문 부회장과 더불어 삼성전자 반도체 신화의 주역 중 한 명으로 꼽기도 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끈 전영현 사장은 2017년 3월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당시 삼성SDI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 성공신화를 일군 주역인 전영현 사장이 삼성SDI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 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사장 취임 첫 해, 삼성SDI는 3년 만의 흑자전환을 달성하면서 그 기대감을 충족시켰다.

그는 사장이 된 뒤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2019년 10월 독일 배터리 시스템 제조업체 '아카솔'에 2027년까지 배터리 셀과 모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독일 자동차 회

사 'BMW'와 3조 8천억원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 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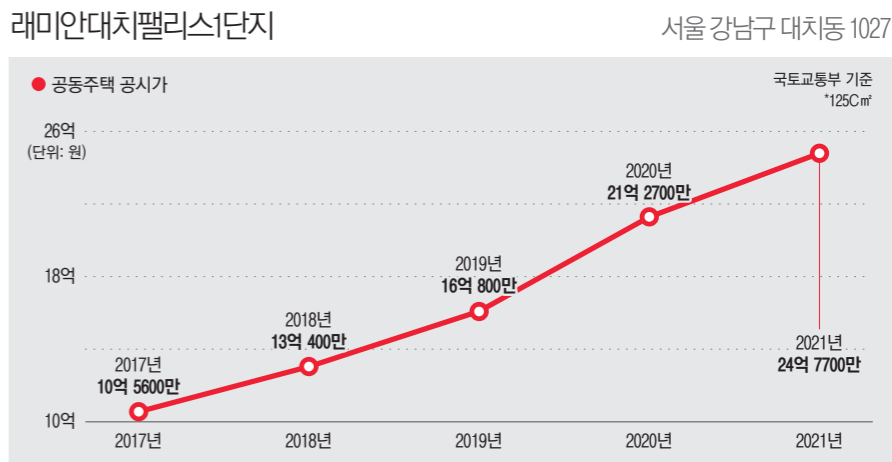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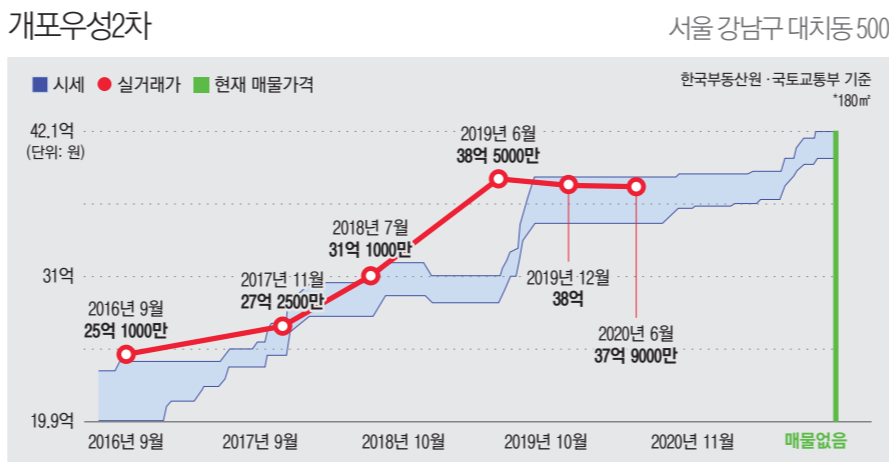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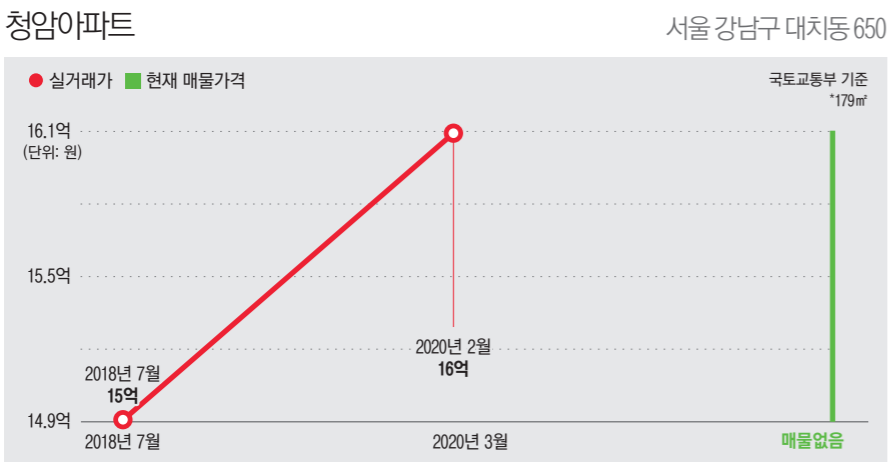
또한 전영현 사장은 삼성SDI의 사업 재편에 힘써 중소형 배터리에 집중했던 사업구조를 에너지저장장치(ESS), 자동차 배터리 등 중대형 전지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등 삼성SDI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삼성SDI는 지난달 헝가리 고드 공장에서 차세대 고성능 전기차용 배터리인 젠5(Gen.5) 양산에 돌입했다. 젠5는 리튬이온배터리 중 주행거리, 충전, 안전성을 모두 잡은 배터리로 양극재 소재인 니켈 함량을 88%까지 높은 하이니켈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기술이 적용됐다. 또한 에너지 밀도가 높아 1회 충전 시 60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단 20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한 급속 충전 기술도 갖췄다. 이외에도 삼성SDI는 여러 진행 사업들을 통해 3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원 기자

전영현 현·삼성SDI 대표이사 사장

- 1989년 ~ 일리노이대학교 아날로그회로설계 연구원
- 1991년 ~ 삼성일렉트론 과장
- 1998년 ~ LG반도체 수석연구원
- 2000년 ~ 삼성전자 반도체 D램 연구개발팀
- 2002년 ~ 삼성전자 반도체 D램 5팀장 상무
- 2006년 ~ 삼성전자 메모리 D램 2팀장 팀장 연구위원 전무
- 2009년 ~ 삼성전자 반도체 D램 개발실 실장
- 2011년 ~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메모리담당 Flash개발실 실장 부사장
- 2012년 ~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팀 팀장 부사장
- 2014년 ~ 삼성전자 DS부문 반도체총괄 메모리사업부장
- 2014년 ~ 삼성전자 부총무부 메모리사업부 부장 사장
- 2017년 ~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

창립기념식



변봉덕 현)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변봉덕 코맥스 회장은 한양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한 뒤 1968년 코맥스의 전신인 중앙전업사를 설립했다. 이후 그는 전자·정보통신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의 통신키기 기술로 승부를 걸겠다는 신념으로 1975년 국내 최초로 도어폰을 개발·상용화한 뒤 1970년대 인터폰, 1980년대 흑백 및 컬러 비디오폰을 개발하며 영상통신기 시장을 선도했다. 1990년대에는 방재방범 기능의 흡음도메이션 제품을 선보이며 가정용 통신기 분야에 혁명을 일으

켰다. 2000년대부터는 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홈 네트워크 제품을 개발하는 등 업계에서 선도자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전자·정보통신 산업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출산업포상, 수출산업표창, 무역의 날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한데 이어 2017년에는 IT 전자의 날 국가유공자 포상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한 바 있다.



백운규 전)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양대학교 세라미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에서 재료공학 석사, 미국 클렘슨 대학교에서 세라미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91년 미국 국립표준연구소(NIST) 연구원, 1992년 창원대 재료공학과 부교수, 1999년 한양대학교 응용화학공학부 부교수, 신소재공학부 교수, 에너지공학과 교수를 거쳐 2017년부터는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학과장 및 제3공과대학장을 지냈다. 2017

년 문재인 정부의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된 그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주요 뼈대를 만들었으며 우리나라를 재생에너지 중점의 구조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닦았다. 하지만 그는 탈원전과 에너지정책에 집중한 나머지 산업정책이 아쉬웠다는 평가를 들었다. 또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윤덕영 전)티웨이항공 대표이사

윤덕영 전 티웨이항공 대표이사는 배재고등학교를 거쳐 건국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했다. 1975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항공업계에 발을 들인 이후 아시아나항공으로 자리를 옮겨 화물영업부 부장, 아시아나트래블호텔 부장, 아시아나항공 영업부 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교육자로서는 한국항공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겸임교수와 수원과학대학교 항공관광학과 학과장을 맡기도 했다. 2010년 8월 한성항공에서 티웨이로 상호 변경과 동시에 대표이사

로 취임한 윤덕영 전 대표이사는 티웨이에서 공격적 경영을 진두지휘하며 국토해양부로부터 인천-방콕 구간의 국제 정기편 노선 허가증을 취득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티웨이항공은 우리나라 최초의 저가항공사였던 한성항공을 인수해 탄생한 항공사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청주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청신호 (가칭)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444만1267㎡ 규모

청주시는 청주네오테크밸리(가칭)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이달 4일부터 2024년 10월 3일까지 3년간 개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신영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일대에 신규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제한지역으로 설정된 구역은 청원구 오창읍 각리·기암리·농소리·신평리·양청리·중신리·탑리,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일원 444만1267㎡ 규모의 부지다.

청주네오테크밸리(가칭)는 오창과학단지(945만㎡)와 오송생명과학단지(483만 3000㎡)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로 테크노폴리스(379만7천857㎡)보다 64만 3000㎡가 크다.

개발 제한 기간동안 이 지역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부동산 개발업체 (주)신영은 네오테크밸리 개발을 위해 지난 5월 시에 투자 의향을 제출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대상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산단 조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예

상된다. 통상 사업계획 승인 처리 기간은 6개월 정도다. 개발 규모가 큰 만큼 관련 부서가 많아 보완 작업 등을 거치면 1년여가 넘는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울러 토지 보상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걸릴 예정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한 개발행위 제한지역은 말 그대로 예정지일 뿐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산업단지 규모는 업체 측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알 수 있으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센터-시립 경로당 4개소, 그린리모델링 대상지로 선정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가 고양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립 경로당 4개소를 그린리모델링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탄소중립 도시 구현을 위해 지난 5

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과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건설연과 함께 지난 6월 노후화된 시립 경로당 4개소를 대상으로 건물 에너지성능 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에너지

지능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 개선안을 경로당 4개소에 실제 적용하여 에너지절감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경로당에 적용될 기술은 △창호 교체 △내·외부 단열재 시공 △그린리프트로봇 기술 등으로 건물별로 최적화된 리모델

링을 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립 경로당 4개소와 함께 리모델링 대상지로 선정된 고양동 행정복지센터는 준공 후 27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건설연의 에너지 성능 개선 기술을 적용한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청사는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LH에 갈매역세권-서울태릉지구 통합개발 요청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는 국회에서 윤호중 국회의원과 함께 김현준 LH 사장을 만나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주민의견서'를 전달하고 갈매역세권과 서울태릉공공주택지구를 통합하여 개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갈매역세권과 서울태릉지구 인접한데 이를 분리한 포도송이 개발로 추진한다면 인근 남양주시 왕숙지구나 진건지구 등의 개발로 더해지는 교통체증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서울태릉지구와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를 연계한 △GTX-B노선 갈매역 정차와 다양한 버스노선과 도로망 확충, 교통 불편 개선을 위한 △사노동(개발제한구역)에 추진 중인 버스공원차고지 확충 △갈매IC 신설 및 구리포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분기점 설치 △갈매역 광역역환승시설 설치 △산마루(갈매역)-화랑로 연결도로 개설 △경춘북로(47면 국도)새우개교개 삼거리 ~ 신내 IC 1km 구간



도로 확장 등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요청했다.

안승남 시장은 "서울태릉과 갈매역세권 광역교통대책을 선 수립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호중 국회의원은 "광역교통개선 대책 선 수립이라는 주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시장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반드시 이행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현준 LH 사장은 "전달받은 서울태릉공공주택지구 지정 주민의견서를 참고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조속히 확정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